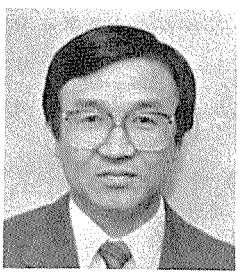
対外 通商 摩擦과 通商 振興政策 方向



蔡 載 億
商工部 通商振興局長

'70년대 초 이후 대두된
신보호주의는 '80년대 이후
더욱 확산되어 선진국의 무역마찰은
물론 NICs에게도 광범위하게 밀어닥쳐
그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흑자규모의 적정관리, 시장개방
확대, 시장다변화,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역할 재정립,
통상활동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Ⅰ. 通商 摩擦의 背景

70年代初 第1次 石油波動 以後 스태그플레이션 現象 등의 영향으로 擡頭하기 시작한 新保護主義가 '80年代 이후 더욱 拡散되면서 50年 이래 自由貿易, 多者主義 無差別 原則으로 国際貿易 秩序를 유지해 온 GATT体制를 無力化시키고 保護主義, 相互主義, 地域的 差別主義가 만연됨에 따라 美国, 日本, EC 등 先進国間에 貿易摩擦이 확대된 것은 물론 그동안 対外指向的 成長政策의 추진으로 급속한 経済発展을 이룩해 온 新興開途国家들(NICs)도 国際社会에서 開途国으로서 自国의 市場開放을 미루면서 貿易黒字를 확대시키려는 通商政策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一大 転換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自由貿易의 황금기인 '60年代初에 이미 貿易黒字 基調를 정착시켜 온 日本이나, 비교적 保護主義가 심하지 않았던 '70年代初에 黒字基調에 들어선 台湾은 오랜 기간동안 완만한 黒字를 냄으로써 보다 쉽게 貿易環境変化에 적응해 왔으며, 自由貿易港으로서 市場開放圧力과 같은 対外摩擦이 없는 홍콩, 싱가폴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世界経済를 主導해 온 美国이 貿易 및 財政赤字 확대로 純対外資産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2年부터 対美貿易에 있어 黒字로 反転되었고, 또한 美国이 債権国에서 純債務国으로 전락한 이듬해부터 우리 貿易史上 처음으로 貿易黒字를 실현하면서 黒字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美国 経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美国의 経常赤字 확대가 世界経済危機의 触発要因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자연히 韓国에 대한 先進国의 警戒心理作用과 함께 通商圧力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도 '70年代부터 繊維쿼터規制를 시발로 신발, 鉄鋼 등에 대한 輸入規制를 받아 왔으나, 본격적인 通商摩擦은 '80年代에 들어와 電子製品을 중심으로 自動車, 機械 등 技術集約製品의 輸出이 급증하면서 1983年 5月 컬러TV에 대한 美国의 덤핑 提訴

세계 경제는 91년까지 성장률 3%내외, 교역신장률 4%내외로 예상된다.

美国의 外債 및 韓国의 貿易收支 現況

(單位 : 億弗)

	'80	'81	'82	'83
美国의対外負債 (純対外資産)	1,063	1,411	1,370	896
美国貿易収支	-314	-346	-384	-642
韓国의対美 貿易収支	-2.8	-4.9	1.6	18.5
韓国貿易収支	-43.8	-36.3	-25.9	-17.6
	'84	'85	'86	'87
美国의対外負債 (純対外資産)	36	-1,119	-2,636	-4,000*
美国貿易収支	-1,224	-1,336	-1,562	-1,712
韓国의対美 貿易収支	36.0	42.7	73.4	95.5
韓国貿易収支	-10.3	-0.2	42.1	76.6

*：推定値

가 이듬해 4月 덤핑 被害 最終判定이 내리고 높은 덤핑 関税가 부과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政府는 물론 業界에서도 通商問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輸入規制 회피를 위한 事前対処能力 강화, 外国의 通商法 研究 확대, 通商로비 活動의 적극화, 輸出秩序 유지, 現地投資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相互主義에 의한 市場開放 圧力등 通商環境이 악화되자 政府는 経済成長, 国際収支 改善, 雇傭安定 등 우리 経済가 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点을 감안하여 輸出의 지속적인 増大가 가능하도록 하는 自由貿易環境 조성을 위해 輸入自由化 予示制를 導入하여 '84年부터 점차 輸入開放을 확대함으로써 '88年 先進国 수준까지 自由化率을 높이고, 外国人 投資도 개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開放政策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Ⅱ. 向後의 通商 環境 展望

世界 経済는 '91年까지 3% 내외의 低成長勢가 지속되고, 交易 伸張率도 4% 내외에 머무르는 등 뚜렷한 景気回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美国의 貿易赤字가 금년들어 예상보다 큰 幅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90年代初까지는 均衡達成이 어려우므로 달러貨의 価値는 切上되지 않을 것이며, 累増되고 있는 開途国의 外債問題 때문에 国際金利도 큰 변동이 없고, 世界原油 生産量을 감안하면 国際油価도 배럴당 15~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展望되어 世界経済를 움직이는 이러한 価格패러미터들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世界経済 与件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展望할 수 있는 요소로는 美国, EC 등 先進国들이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10月의 証券市場 波動影響을 잘 극복하여 견실한 成長勢를 유지하고 있고, 日

本, 西独, 아시아, NICs 등 黒字国家들의 輸入増加勢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를 反映하여 美国의 貿易収支도 개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외 OECD閣僚会議, G－7 先進国 頂上 会談,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통해 経済政策 協調 분위기가 높아지고, 産業内 水平分業의 확대 등 構造 調整의 비용이 적게 드는 国際分業化가 進展되고 있으며, 蘇聯, 中共 등 共産圏国家들이 과감한 経済改革과 開放化를 추진하고 있고, EC와 코메콘이 相互認定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否定的인 측면으로는 먼저 美国의 赤字－日本, 西独, NICs의 黒字 등 地域的 貿易不均衡, 債権国과 債務国 問題, EC経済 硬直性 등 世界経済의 불균형은 점차 개선된다고 해도 '90年代까지 지속될 것으로 展望되는 점 등이다.

즉 금년 3～4月처럼 美国의 貿易赤字가 큰 幅으로 줄어 들어도 貿易収支가 균형이 되는 것은 '92년경까지 가야 하며, 이 기간 동안 美国의 純外債는 '87년의 약 4,000億弗에서 1兆弗로 늘어나게 되며 매년 利子償還만 600億弗이 넘어 貿易収支 黒字로 충당된다고 해도 外債는 쉽게 줄어들지 않게 되어 世界経済의 불안요인은 상존하게 된다. 美国의 이러한 貿易黒字는 日本, 西独 등의 貿易収支가 적어도 균형이나 小幅 赤字状態로 되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開途国의 外債問題 해결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높은 失業状態의 EC経済가 成長促進政策을 시행할 경우 失業 解消보다는 物価上昇이라는 인플레만 초래해 온 경험 때문에 쉽게 内需拡大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美·이스라엘, 美·멕시코, 美·캐나다 등 自由貿易協定 締結, EC単一市場化 形成(Single European Act), ASEAN結束強化와 같은 地域主義가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域内 交易増大만 도모하고 域外 貿易障壁을 지속시키게 될 경우 世界貿易 発展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対外 交易与件 展望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美国의 赤字 改善이 지연되면 通商圧力이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赤字改善이 현저한 경우도 이의 加速化를 위한 美国의 通商圧力은 고삐를 늦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의 交易環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美国 通商政策의 전략적 5단계를 輸入規制, 市場開放, 換率調整, 経済政策協調, 市場占有率 保障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최근에 서비스, 農産物 등의 市場開放要求와 함께 美国의 저명한 経済研究機関들이 韓国 등 NICs가 投資収益率이 높아 黒字維持는 経済効率性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주장한 뒤 곧 바로 換率調整 요구를 했으며, NICs役割分担論을 계기로 内需拡大 등 政策協調를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対美黒字가 계속 拡大될 경우에는 美·日 半導体協定에서와 같은 競争力 有無에 관계없이 市場 쉐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로까지 갈 우려가 없지 않다. 담배市場 開放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日本이나 台湾의 輸入담배 市場占有率이 10～20% 수준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86年 開放後 0.3% 정도에 머물게 되자 販売価格引下, 専売制度 및 輸入販売制度의 대폭 改善을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開放한 品目이 国内기호 등으로 市場占有率이 저조할 경우 이러한 市場占有保障을 요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Ⅲ. 通商 政策의 基本 方向

1. 国際収支 黒字規模의 適正管理 노력 지속

우리의 黒字示顕은 開途国 経済発展의 실천 모델로서 오히려 讃辞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対内的으로는 海外部門 通貨管理의 어려움, 인플레 압력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対外的으로는 직접적인 通商摩擦의 원인이 됨으로써 앞으로 黒字規模를 지난해 GNP 対比 8.3%에서 점진적으로 관리하여, 外債償還, 構造調整을 통한 成長潜在力을 확충시키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2～3%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国内資源의 절대부족, 毎年 40만이 넘는 新規経済 活動人口에 대한 雇傭機会 創出, 国内市場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우리 経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輸出의 지속적 増大는 불가피하므로 黒字管理도 輸出抑制보다는 輸入増大를 통한 貿易의 拡大均衡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既開放된 品目의 輸入節次를 간소화하고 輸入金融制度를 확대하는 등 能動的인 輸入政策

의 추진과 아울러 関税率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93년경에는 先進国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経常外換去来도 貿易自由化와 国際化 추세에 맞추어 향후 2～3년내에 OECD 수준으로 自由化를 추진함으로써 貿易外 収支, 移転収支 部門에서 과도한 黒字発生을 억제할 것이며, 이미 추진된 黒字管理措置로 輸出支援制度가 대폭 縮小 또는 폐지된 時点에서 이러한 輸入拡大, 外換自由化 조치에도 불구하고 黒字가 확대될 경우에는 원貨 切上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市場 開放의 拡大

과거 市場開放은 83년부터 輸入自由化 予示制를 통해 단계적 開放으로 業界의 対応能力을 길러, 마침내 黒字로 전환함으로써 国民経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경쟁력이 있는 工産品 分野는 거의 개방이 완료된 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산물, 서비스 分野에 개방 요구 가 집중되고 있다.

工産品의 경우는 非関税障壁의 단계적 철폐로 실질적인 開放 拡大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国内 経済的, 社会的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해야 하나, 소극적인 保護措置만으로 農業問題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市場開放에 있어 農産物을 전혀 예외로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品目別로 향후 競争 가능 与否, 農業政策上 保護필요 与否 등을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開放 스케줄을 마련하고 補完対策을 강구하면서 개방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産業은 세계적 추세로 보아 開放 확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貿易, 流通, 輸送, 情報, 金融 등 商品交易 및 生産과 관련된 서비스 分野의 体質強化를 통해 製造業의 生産性 向上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開放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89～'91년까지의 開放予示計劃을 수립하고 開放과 관련하여 국내 関係法 整備, 専門人力 양성, 先進技法 습득 등 競争力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3. 通商圏別 特性에 맞는 市場 多辺化 施策의 推進

黒字 転換 이후 通商摩擦 解消를 위해 対美黒字, 対日赤字 是正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미 対美輸出比重 減少, 輸出増加率 鈍化와 対日輸入 比重減少, 輸出増加勢 急上昇 등 多辺化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주요 通商圏別로 다변화 施策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美国, EC 등 黒字圏은 輸出抑制보다 輸入先転換資金 継続支援 등 輸入増大를 통한 拡大均衡을 도모함으로써 産業, 技術協力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日本, 濠洲 등 赤字国에 대해서는 逆調改善을 위해 日本의 NICs製品 輸入붐과 濠洲의 貿易自由化政策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市場開拓을 적극화하고, 輸入代替 및 輸入先 転換

主要 地域別 輸出入 実績 (単位 : 億弗, 増加率)

	'86		'87				'88. 1～4月			
	輸 出	輸 入	輸 出	%	輸 入	%	輸 出	%	輸 入	%
美國	139	65	183	31.9	88	33.8	61	19.3	35	45.8
	(40.0)	(20.7)	(38.7)		(21.4)		(34.9)		(2.4)	
日本	54	109	84	55.5	137	25.7	36	59.1	49	19.1
	(15.6)	(34.4)	(17.8)		(33.3)		(20.4)		(31.3)	
EC	43	32	66	53.2	46	43.5	25	38.6	19	15.1
	(13.4)	(10.2)	(14.0)		(11.2)		(14.4)		(12.0)	
其他	111	110	140	26.1	139	26.4	53	31.7	54	40.6
	(32.0)	(34.7)	(29.5)		(34.1)		(30.3)		(34.4)	
計	347	316	473	36.2	410	29.9	174	32.5	156	3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 ) 内는 構成比(%)

노력도 병행해 나아갈 것이다.

開途国에 대해서는 南南協力 次元에서 対外経済協力基金을 확대하여 経済協力 事業을 적극 추진하고 産業構造調整에 따른 海外投資 進出도 확대해 나가며, 東欧圈 및 中共 등 未修交国家에 대해서도 현재의 間接交易을 더욱 活性化하고 마지막 남은 未開拓市場임을 감안하여 直交易基盤 확충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4. 国際経済社会에서의 役割 再定立

1人当 GNP水準, 外債 및 国防費 負担, 経済構造의 취약성 등에도 불구하고 世界 10位圈의 交易国으로 浮上하면서 経済力이 향상됨에 따라 国際経済社会에서 더 이상 Free-Rider로서 우리의 이익만 추구할 수 없는 입장임에 비추어 世界経済의 共同繁栄과 안정을 위한 책임분담이 불가피하게 된 우리의 위치를 再認識해야 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등 새로운 国際貿易秩序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保護主義를 저지하고 分野別 協商에서 우리의 実利를 확보해 나가며 NICs의 役割分担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의 受容能力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国際協力型 経済로 전환해 나아갈 것이다.

5. 效率的인 通商 活動의 展開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国際貿易 環境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 政府는 公式的인 交涉 채널의 확대를 통해 通商問題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 公正貿易 秩序 확립, 産業構造 調整의 촉진 등을 통해 通商摩擦의 발생을 억제해 나아가는 한편, 通商政策의 樹立推進에 있어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国民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企業도 通商問題에 있어서는 個別企業보다 産業 全体의 生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海外進出을 확대하여 輸入規制障壁을 회피하고, 通商環境 変化에 대처해 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業種別 団体 역시 주요 交易国에 대한 로비스트를 효율적으로 雇傭, 活用하여 通商紛争을 해결하고 海外 有関団体와 相互協力하여 通商情報 蒐集 및 伝播, 展示事業 支援 등 協力増進을 도모해 나아가는 등 政府, 企業, 団体 등이 상호 有機的인 通商活動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로 닦은역량
수출로서 꽃피우자